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상반기 수질환경 보전회 회의 및 환경정화활동 펼쳐

[정읍=하경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는 지난 18일 내장저수지에서 '2025년 상반기 수질환경 보전회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는 지난 18일 내장저수지에서 '2025년 상반기 수질환경 보전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단체와 농업인 대표 등 관련 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수질환경 보전회 위원들이 참석해, 관내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역할 분담과 녹조 저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며,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청정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회의를 마친 뒤, 정읍지사 직원들과 위원들은 내장저수지 주변과 제방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활동을 함께했다.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국지성 호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읍 지역 농업용수의 수질 개선과 환경 보전을 통해 청정한 환경에서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질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하경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읍=하경민 기자